

‘아이티 참사’ 불교계 구호 열기

조계종, 적십자연맹에 성금전달 솔선
아름다운동행·본지 ‘기금 모연’ 착수
문의전화 쇄도…모금함 설치 잇따라

조계종이 사상 최악의 지진참사를 겪고 있는 아이티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불교신문과 공동으로 대지진 참사로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이티 재난구호를 위해 긴급구호기금 모연에 들어갔다. 참사 사흘째인 지난 15일 아이티 대지진 참사와 관련 애도논평을 발표하고 국제적십자자연맹을 통해 아이티에 5만불을 우선 전달한 총무원은 전국 사찰과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아이티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후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웅산스님)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스님)는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참사 구호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전달했다.

교구본사 최초로 아이티 성금행렬에 앞장선 수덕사 주지 웅산스님은 “얼마 전 반결해 때 대중스님들과 즉석에서 모은 500만원을 충남도청에 전하러다 더 많은 기금을 모아 종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세계일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지구촌 이웃나라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아이티 참사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 자비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아이티 구호활동을 적극 독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8일 중무간담회에서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을 도울 수 있는

모금 운동 등 종단 차원 방안에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한국불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구호운동을 펼쳐, 실의에 빠져 있는 아이티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도 구호기금활동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19일 “인류의 대재앙 앞에는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동체대비심의 사상에 입각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0만원을 전했다.

사찰마다 아이티 참사 구호성금을 위한 모금함 설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스님)는 지난 18일 경내에 아이티를 돕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8각10층석탑과 백송 앞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강화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경스님)도 지난 18일부터 회원 사찰에 아이티 돕기 모금함을 설치하고, 각 사찰별로 심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 아름다운동행도 지난 18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모금함 2개를 설치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19일 오후6시 현재 2519만 2000원의 성금이 모였다. 동행측은 “기부 관련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수 하정은 박인택 기자



덕숭총림 수덕사와 서울 봉은사가 지난 18일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아이티 참사 구호기금을 각각 1000만원씩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봉은사 부주지 진화스님,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 수덕사 주지 웅산스님.

社告

지진참사 아이티에 자비의 손길을!

지난 1월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십만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지진 참사로 인하여 국민 1/3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이티 재난구호를 위해 긴급구호기금을 모금합니다. 모아주신 기금은 아이티 돕기 재난 구호 및 국제구호를 위한 자비나눔 사업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자비나눔 계좌 :
농협 301-0029-6115-7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농협 053-01-247901 (예금주: 불교신문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불교신문
- 문 의 : 아름다운동행(737-9595)
불교신문사(730-4488)

“중도연기가 바로 참된 소통의 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성도재일 메시지

조계종은 불기 2554년 성도재일(1월22일, 음력 12월8일)을 맞아 불자들의 정진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전국 사찰에 포스터(사진)를 배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메시지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자신을 둘러싼 고통의 원인과 주변의 현실을 고요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연기(中道緣起)야말로 ‘나’

와 이웃, 우리 사회,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참된 소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 나를 바로 보면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 갈등하는 모든 인연들의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갈등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 소통과 화합의 큰 물줄기를 함께 만들어 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전국 사찰, 아이티 돕기 참여를”

총무원, 1700여 곳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9일자로 전국 본·말사와 직할교구사찰 1675곳에 아이티 구호기금 모연을 독려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주무부서인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스님)는 공문을 통해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십만명의 사상자와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78%가 하루 2달러 미

만으로 살아가는 빈국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구호 동참을 호소했다. 사회부는 또 공문에서 “종단은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의 설립취지를 살려 아이티 국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본·말사 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향일암 화재 후 ‘첫 초하루 법회’ 현장

관음전 용왕전 ... 전각마다 힘찬 기도

지난 15일 오전, 관음성지 여수 향일암에서 초하루법회가 열렸다. 여느 때 같으면 법당 안에서 법회를 보전만 이날은 달랐다. 50여 명의 신도들이 법당 앞마당에 합장한 채 서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았다. 지난해 12월20일 불의의 화재로 대웅전을 잃었기 때문이다.

향일암에 화재가 난 지 한 달 만에 열린 첫 법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사시에불에 이어 대웅전 복원을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지자 여기저기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2시간에 걸친 기도 내내 스님과 신도들 얼굴에는 연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법회를 마치고 주지 원문스님이 신도들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시지 못한 죄업을 불·보살님 전에 엎드려 참회하고 또 참회한다”며 잠시 허공을 바라보던 스님은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빠른 시일 내에 법당을 복원해 으뜸가는 관음성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향일암은 10여 년 전부터 낡고 좁은 대웅전 중창불사를 발원했다. 첫 삼을 뜨고 4년만인

지난해 9월 대중스님은 물론 신도와 전국의 불자들이 뜻을 모아 멋진 법당을 낙성했다. 그런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재가 났던 것이다.

이날 법회에 앞서 14일 여수경찰서는 향일암 화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대웅전이 대부분 훼손, 붕괴돼 발화부와 화재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

신도회 다시 팔 걷고

‘복원불사’ 본격 시작

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연구소는 “화인은 촛불·인적화원·기타 불꽃류 등 고온화원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인은 연소 잔류물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단정키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단서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당부해 화재원인은 오리무중으로 남게 됐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2면에 계속



화재가 난 지 한 달 만에 열린 향일암의 첫 초하루법회. 지난 15일 사시에불에 이어 대웅전 복원을 기원하는 축원이 이어지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종단본 ‘부처님생애’ 첫 발간

10면

향일암(向日庵)을 사랑하는 종도(宗徒)와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謝罪) 올립니다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여수 향일암은 해동 제일 해맞이 명소이자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으로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량입니다.

참담하게도 지난해 12월 20일 불의의 화재로 대웅전과 종각, 종무소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주지 소임을 맡아 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시지 못하여 지은 죄업을 불보살님전에 엎드려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또한 대웅전 중창불사에 지극정성으로 동참해 주신 종도와 국민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죄송함에 거듭 사죄 올립니다.

저와 향일암 사부대중은 이번 화재로 소실된 성보와 문화재를 한마음으로 안타가워하며 슬픔에 빠진 종도와 국민을 바라보며 그동안 향일암

이 얼마나 사랑받는 도량인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모든 죄업과 책임을 참회하며, 향일암을 창건하신 원효대사의 발원처럼 이웃과 중생의 의지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도와 국민 여러분!

저와 향일암 사부대중은 혼신의 신심을 다해 기도하고 참회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상주하는 모든 중생들의 귀의처이자 불자의 기도성지로 거듭 날 것을 일체제불 보살님께 발원합니다.

다시금 이번 화재의 모든 업보를 종도와 국민여러분에게 사죄 올리면서 부처님의 성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월 15일

☯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 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원문 합장